

炭谷面長才洞壬坐原沈恭人耐焉銘曰 絕知妙解發以韶音蠶絲經曲危刀幾深黼黻之手屈之朱墨嗟時之舛嗟時之舛齡又何
 嗇齡又何嗇寂廖一嚮孰知泰劔我發潛光刻石幽局百世之下尙識其有宋士行先生

嗚呼府君志業照耀一世貞珉之銘能合於有道無媿之辭以洗乎景文蚩冷之譏亦難矣故自先世獨取乎鹿門任公幽誌之作知其
 同德講劓無如此公之詳將此誌文擬欲移刻於碣陰而只有治石與再度追記閱屢星霜而未遑者抑有待於冥會而然歟 憲宗甲

辰相臣權敦仁 筵白府君經學淵源之盛又嘗惓惓於春秋大義而力辭薦剡混跡陰途請加 褒嘉命贈大司憲兼祭酒之職恭人從
 贈貞夫人嗚呼休哉不肖鍾冕始克遵先志請筆於當世君子顯刻而堅之塋東追記內外雲仍謹稽先祖考縣監諱致淵無子取 贈

左贊成諱時淵次男晋州牧使諱啓栢爲子贊善文敬公爲啓幹無子取晋州公長男諱泰熙爲子官參判次男諱豐熙早卒只有庶男
 周老參判公有二男一女男長夏老縣監次諱殷老金山郡守還歸本重寔吾禰也女適趙觀鎬有二男韓弼漢兢牧使公女婿趙秉岳

縣監繼男重夏監役周老有二男鍾翊主事次鍾轍環淳瑛淳璨淳淳卽鍾翊之四子郡守公有一男二女男卽鍾冕女適金興鎮進
 士洪範植參書縣監公有一男鍾憲早沒以興淳爲繼進士原誌中外裔長金寧次金光默三男二女基肯基胥正言基有郡守女適尹

厚東庶尹趙鎮宜次黃仁燾三男基肅基南基星李義宅無嗣三女適金順喜朴濟堯吳焜李光憲參判繼男惇進士三女適沈宜度洪
 鐘浩府使金浩根洗馬洪箕燮五男在應牧使在承在聲在望在行進士洪冕燮承旨金在璿男命鉉過房縣監繼男世鉉縣監女適李

馨溥教官趙萬永領敦寧府事豐恩府院君克誕 聖女神貞王后追崇翼皇后男判書文肅公秉龜判書秉夔次女適李寅高判書俞
 致善判書金奭鉉府使

光武八年甲辰十一月 日立

五代孫通政大夫安東郡守鍾冕謹追記
 崇政大夫前判敦寧院事海平尹用求書

穿鑿之說而直契聖人本意於數千載之上真是曠世卓見使公無死其所就庸可量哉嗚呼惜哉已未補 長陵參奉不就既而爲翊爲司侍直會賊臣趙泰考子顯彬爲洗馬公義不與同僚卽棄去未幾復入翊衛司爲副率以顯彬尙居其職又棄去癸亥牧谷李公箕鎮秉銓首舉公爲童蒙教官居歲餘以無童蒙辭遞公雖以陰路進出處進退必以義未或放過以此久未調至丁卯始由侍直叙宗簿寺主簿轉刑曹佐郎出爲文義縣令嚴以束吏人以恤民敏於剖決而濟以綜密人不敢欺號爲神明方伯飭列邑使鄉置訓長考講黜陟公曰養而後教教而後考理也吾不能貿行逆矢以媚上官遂寢不行而多方經劃至庚午始頒令于校使擇子弟年少質美者三十人分番居齊又敦請鄉老有士望者爲齊長以教之節目既具而公會以病去不果行識者恨之然其臨事不苟必求盡分於此亦可見矣辛未 除翊贊遞壬申十二月十五日病卒享年僅四十三公天姿絕異容貌如琢玉端莊而易直明白而疏達平生不喜爲標致而其治心克己常默默加功實有人不可及者事親有至誠左右就養曲盡其誠古所謂視無形聽無聲跬步不忘父母於公兄弟見之事伯氏如嚴父伯氏嘗服藥公親爲煎進服而後退一日藥未進而以事少起歸卽奉進伯氏有不豫色徐曰何之公浚巡不敢對其容有蹶其敬謹如此與人交曲有誠款溫恭子諒言笑琅然人皆愛重之然實峻截冷淡見人有過必面責之不少饒尤嚴於陰陽黑白之辨是非所在操執確然不以一毫撓之桂坊多僚員異趣者雜進每入直上下番分居東西室與相來往而公獨嚴立界限不失一步地留心世務遇事辯論多鑿鑿中窾伯氏嘗戲言士行胸中常熟開豈所謂皇天帝伯中自輪困者耶論天下事至丙丁甲申輒慷慨歔歔曰我國於 皇明君臣之義百世如一日不可視以前代而李玄錫明史乃敢名以綱目而予奪之謬悖甚矣常嚴斥之後英廟命詞臣編皇朝史以通鑑名其書蓋公之議行也有文集若干券藏于家其中晚所作幾乎與道一者李敏輔伯納讀之曰百餘年來無此作人以知言朱子周易本義從呂氏本以反古經十二篇之舊而永樂大全乃用王弼本合傳義爲一後學不復知朱子本意公病之考據朱子諸說而更定之後得燕本古易一如公所爲朱子編小學書略爲註解見於何氏集成而讀者皆泛過不知爲朱註公剔發之釐爲別本以還其舊因行于世其看書求道隨處透脫率類此筆法精工尤長於隸人家金石多公筆與元靈之篆竝稱爲近世篆隸之宗云晚得一輿區於所居之方山下鑿池種蓮作小亭以臨之名其堂曰閒靜取淵明語也公配青松沈氏吏曹參判聖希女端恭婉嫵事皇姑至孝事櫟泉公以至誠及沒櫟泉公爲文哭之詞甚悲宗黨咸稱之曰眞公之配子男長致淵縣監次時淵出爲櫟泉公後方知新寧縣女婿長直長金寧次監司金光默次參奉黃仁燾致淵無子子時淵男啓栢女婿李義宅李光憲洪箕燮時淵二男長啓幹次卽啓栢女婿洪冕燮金在璿趙萬永金光默三男基肯基胥基有女婿尹厚東趙鎮宜黃仁燾三男基肅基南次幼女婿金培根次未行公墓在公州

* 宋文欽墓碑

(前 面)

有名朝鮮散大夫行文義縣令 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酒閒靜堂宋先生諱文欽之墓

贈貞夫人青松沈氏附左

(陰 記)

聖周少而寡合獨幸從姨兄櫟泉宋公兄弟遊長公長余六歲少公長一歲而長公敦重弘粹少公清明英發願余蒙陋無足爲後先而猶猥被裝愛相得蓋驩然也今不幸中年少公奄忽先逝每與長公語及存沒未嘗不潛焉出涕也今長公亦已下世而余獨不死白首偃偃每念公溫粹之資超妙之見自不勝百身之感而亦何及哉昔司馬公與范蜀公約後死者爲之誌今二公志業造詣非余發之伊誰也旣爲櫟泉誌遂及於公蓋所以塞後死悲也公諱文欽字士行恩津人文正公同春先生諱浚吉四世孫也曾祖諱光弼工曹正郎贈吏曹參判祖諱炳遠義禁府都事考諱堯佐以都事公弟尙州牧使諱炳翼之子爲都事公後卒官錦山郡守號默翁妣令人坡平尹氏戶曹正郎 贈吏曹判書諱扶女也櫟泉公諱明欽爲世儒宗官至贊善嘗被徵至京言事忤 旨卽徑去士林高仰之公以 肅宗庚寅十二月十一日生生而眉目明秀精采溢發稍長聰明絕人書一過目卽背誦不錯一字櫟泉公嘗言古所稱神聰未知如何而以吾所見士行其幾矣與伯氏同學於默翁公理夙就出語輒驚人謂之宋氏雙辟爲文章清簡高古聲韻若出金石詩亦澹宕有思致一時文士如洪梓養之黃景源大卿李麟祥元靈皆讓一頭之間出遊場屋輒屈其曹偶遂以 英廟癸丑中司馬高等然其中心所樂不在是也蓋自文正先生以來詩禮之教遠有淵源而又有賢兄相與薰陶故雖不能專心向裏奮然以聖賢自期如櫟泉公而其卓識妙解往往直造乎造化之原而筆力精悍又足以形容道妙雖櫟泉公亦自以爲不及也嘗陪伯氏與一二同志入懷德之飛來庵講大學更唱迭書成一巨編而公所論說獨發其妙諸友爲之閣筆然却公平寬弘不滯一隅而見理甚敏聞人言卽能曉解其意可從則從不少留難由是人亦樂與之上下其論焉尤深於禮常曰爲禮而不本於儀禮陋也如喪服士喪禮及冠婚牲牢等篇皆所腹習而於杜氏通典亦然故其答人疑問動有名據可行無疑其他言議亦多不拘箋註獨知徑造發前人所未發者今讀遺稿如春秋論首篇一掃諸家

다. 홍면섭은 승지요, 김재선의 아들 명현은 조카 양자로 현감이요, 양자 세현은 현감이 고 딸은 교관 이형부에게 시집갔다. 조만영은 돈령부사로 풍헌부원군이니 성녀 신정왕후를 탄생하여 의황후로 추승하고 아들은 판서 문숙공 병귀와 판서 병기이고, 차녀는 이인설 판서와 유치선 판사와 김석현 부사에게 출가하였다.

광무 8년 갑진 11월 일에 세우다.

5대손 통정대부 안동군수 증면은 삼가 추기하다.

승정대부 전 판돈령원사 해평 윤용구는 쓰다.

(역 주)

- ① 통진(通典)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 ② 천착(穿鑿) - 학문을 깊이 파고들어 감.
- ③ 계방(桂坊) - 동공이 거처하는 곳. 세자 익위사의 별칭.
- ④ 보불(黼黻) - 임금의 예복에 입는 치마의 수로 도끼 모양의 문양.

다. 큰사위는 직장 김령이요, 다음은 감사 김광복이요, 다음은 참봉 황인도의

다. 치연은 아들이 없어서 시연의 아들 계백으로 아들을 삼고, 사위는 이의택과 이광현과 홍기섭이다. 시연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은 계간이요, 다음은 계백이다. 사위는 홍면섭과 김재선·조만영이다. 김광복이 세 아들을 두니 기공·기서·기우이고, 사위는 윤후동·조진익이다. 황인도가 3남을 두니 기숙·기남이요 다음은 어리고, 사위는 김배근이요, 다음은 시집가지 아니하였다. 공의 묘는 공주 탄곡면 장재동 임좌의 언덕에 있는데, 공인 심씨도 여기에 합장하였다.

명하여 가로되,

절묘한 지식으로 오묘하게 풀이하여 풍류 가락을 표현하였고, 누에의 실같이 경의 끈긴함을 푸주간 칼로써 얼마나 깊이 했다. 보불^④을 수 놓는 손이요, 굴의 주묵이라.

슬프도다. 때의 어김이여! 때의 어김이여!

나이 또한 어찌 단명한가, 나이 또한 어찌 단명한가, 고요한 한세상이 태평하고 막힐 줄을 누가 알겠는가.

내가 공의 숨은 빛을 드러내어 비석에 새겨두니,

백세의 후에라도 오히려 송사행 선생이 있었음을 알 것이다.

오호라. 부군의 뜻과 사업이 한세상에 밝게 비치고 비의 명이 능히 도에 합하여 부끄러움 없는 말씀으로 좋은 글로 어리석은 냉소의 기룡을 씻으니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윗대로부터 오로지 취한 녹문 임공이 지은 묘지명에 나타난 그 덕과 학문을 강구하고 연마함을 알만한 것이, 공의 자세한 내용이어서 이와 같은 것이 없다. 이 지문을 가지고서 비의 뒤에 읊겨 새기고자 하였는데, 다만 돌만 다듬고 두 번이나 추가 하였으니 여러 해를 지나도록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은 우연히 뜻이 서로 맞기를 기다려

서 그러한 것이었던가. 현종 갑진년에 상신 권돈인이 경연에서 부군의 경학이 근원이 깊고 융성함을 아뢰고, 또 일찍이 춘추대의를 위해 힘썼다고 말씀하고 천거하여 혼란한 자취를 꺾고 음사로 포상을 가할 것을 청하여 증대사헌 제주의 직책을 받고, 부인은 공인에서 정부인으로 증직하였다. 오호라. 아름답도다. 불조 종면이 비로서 말씀에 따라서 당세의 군자에게 글을 청하여 비문에 나타내어 새기고, 비를 산소의 동쪽에 세우고 추기한다. 내외손이 번성하여 삼가 상고하니, 선조고 현감 치연은 아들이 없어서 증좌찬성 시연의 둘째 아들 진주목사 계백을 취하여 자식으로 삼고 찬선 문경공 계간이 아들이 없어서 진주공의 장남 태회를 취하여 아들을 삼으니 벼슬이 참판이요, 차남은 풍희니 조졸하고 다만 서자 주로가 있다. 참판공이 2남 1녀가 있으니 장남 하로는 현감이요, 다음은 은로이니 금산 군수인데 본가에 돌아오셨으니, 이분은 나의 아비이다. 딸은 조관호에게 출가하여 두 아들을 두니 한필과 한공이다. 목사공의 사위 조동악은 현감이요, 계남 중하는 감역이다. 주로가 2남을 두었으니 종익은 주사요, 다음은 종철이다. 경순·용순·영순·찬순은 종익의 네 아들들이다. 군수공이 1남 2녀가 있으니 아들은 종면이요, 딸은 진사 김홍진과 참서 홍범식에게 출가하였다. 현감공이 아들 종덕을 두었는데 조졸하여 홍순으로 후계를 삼았는데 진사이다. 원래 묘지에 쓴 외손들은 큰사위는 김영이요, 다음 사위 김광복은 3남 2녀를 두니 기공과 기서는 정언이요, 기우는 군수이고 딸은 윤후동 서윤과 조진의에게 출가하고, 다음 황인도는 3남이니 기숙·기남·기성이요, 이의택은 후사가 없고 세 딸은 김순희·박재요·오황에게 출가하고, 이광현은 참판이요, 양자 후는 진사이고, 3녀는 심의도와 홍종호 부사와 김호근 세마에게 출가하고, 홍기섭이 5남을 두니 재응은 목사요, 재승과 재성과 재망과 재행은 진사이

니, 옛적에 이른바 형상이 없는데서 보고 소리가 없는데서 듣고 발자국마다 부모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공의 형제에게서 보겠다. 형님을 모시는데 업무 모시듯 하여 백씨가 일찍이 약을 복용하심에 공히 친히 위하여 다려드리고 잡수신 뒤에 물러갔다. 하루는 약을 드리지 못하고 일이 있어 잠시 일어나 떠났다가 돌아와서 곧 받들어 드리니 백씨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빛이 있으면서 천천히 말씀하기를 어디를 갔었느냐 하니 공이 물러가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 모양이 움츠림이 있었으니 그 공경하고 삼감이 이와 같았다. 사람들들과 사귄 때에도 극진히 정성을 다하였고, 온화하고 공손하고 사랑하고 미쁘게 하고 말쑥과 웃음이 명량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사랑하고 중히 여겼다. 그러나 사실은 매우 위엄이 있고 정중하며 깊이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남의 허물이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를 만나 책망하고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더욱 음양과 후백을 가려 엄하게 하여 시비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한 털끝만 큼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계방(桂坊)③의 많은 동료들이 마음이 맞지 않은 자가 섞여 지냈는데, 매번 당직할 때 상하반으로 동서실에 나누어 거하며 서로 왕래하는데, 공은 홀로 양편의 경계에서 엄격히 중립을 지키며 한 발짝도 일하지 아니하여 세상일에 마음을 두고, 일들을 만나면 변론함이 분명하여 적중함이 많았다. 형님이 일찍이 회통해 말하기를 그대의 흉중은 항상 복잡하니, 어찌 제왕이나 여러 대신 중에 스스로 위아래, 좌우로 꺾이고 굽었느냐 하였다. 천하 일들의 논함에 갑신년의 사화에 문득 강개하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명나라와의 군신의 의리를 백년을 하루 같이 지냈는데, 예전의 시대를 볼 수가 없구나. 이 현석이 지은 명나라 역사에 감히 강목으로 이름하고서 넣고 빼는 잘못이 심하다 하고서 항상 엄하게 배척하더니, 후에 영조가 문사를 명하여 명나라 역사를 편찬하면

서통감으로써 그 책을 이름하였으니 대개 공의 의논이 행해진 것이다. 문집 약간 권이 집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말년에 지은 것은 거의 도의에 관한 것이다. 이 민보가 이것을 읽고서 말하기를 백여년 내에 이러한 작품이 없었다 하니, 사람들은 이 말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주자의 주역 본의는 여씨본을 따랐으며, 고경 12편의 옛것을 돌이켜 쓰고, 영락대전은 이에 왕필본을 써서 전과 의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는데, 후한들이 다시 주자의 본뜻을 알지 못하니, 공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주자의 여러 설을 참고해서 이것을 다시 확정된 뒤에 연본 고역을 얻어 보니, 하나같이 공이 만든 바와 같았다. 주자가 소학의 글을 편집하면서 간략히 주해를 한 것이 하씨의 집성에 보이는데, 독자들이 모두 그대로 지나쳐서 주자의 주석인 줄을 알지 못한다. 공이 이것을 자세히 밝혀 별본을 다듬어 만들어서 그 옛것을 환원시키고, 세상에 행하게 하였다. 그 글을 보고 도를 구함이 곳에 따라 투철하고 뛰어난 대개 이와 같았다. 필법이 정미하고 공교로우며, 더욱이 예서에 뛰어난다. 남의 집안의 금석문들은 공히 쓴 것이 많아, 이인상의 전서와 더불어 근세 전자와 예서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말한다. 만년에 한 벽지의 터를 얻어서 그곳에 살면서 산 아래에 못을 파고 연을 심고 작은 정자를 만들고, 그 당의 이름을 한정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도연명의 어록에서 취한 것이다.

공의 부인 청송 심씨는 이조참판 성희의 따님인데, 단정하고 공손하고 아리파우며, 시어머니를 섬김에 지극히 효도하고, 특권공을 섬김에 지성으로 하였다. 돌아가니 특권공이 글을 지어 곡을 하였는데 글이 심히 비통하여 종중에서 모두 말하기를 부인은 공의 참된 배필이라 하였다. 장남은 치연이니 현감이요, 다음은 시연이니 출계하여 특권공의 후사가 되고 바로 신령현감이 되었

지 못함이 있었다. 일찍이 형을 모시고 한 두 동료와 함께 회덕의 비래암에 들어가 대학을 강론하면서 서로 읽고 써서 하나의 큰 책을 만들었는데, 공이 논술한 것이 유독 오묘하여 여러 친구들이 붓을 던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득 공평하고 너그럽고 마음이 넓어서 한 곳으로 막히지 아니하고, 이치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빨라 남의 말을 들으면 바로 이해하여 그 뜻을 따를 만하면 바로 따라서 지체하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 토론하면서 오르내리는 즐거움을 누렸다. 더욱 의례에 깊이 알아서, 항상 말하기를 예는 의례에 근본을 두지 아니하면 고루해 진다고 하였다. 상복과 선비들의 상례와 관혼과 제물 등 여러 가지가 실천한 것이요, 두씨의 통전①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남의 물음에 응답할 때 모두 분명한 증거가 있으며, 바르게 행할 만 하고, 의심 없이 하며, 기타 의논이 많이 있어도 주석에 구애되지 아니하였다. 스스로 경위와 조예를 알아 먼저 사람들이 발표하지 못했던 것을 발표하였다. 이제 유고를 읽어보니, 춘추론과 같은 것은 머리 편에 여러 학자가 천착②한 설을 일소해 버리고, 곧 바로 수 천년을 거스려 올라가 성현의 본 뜻에 맞았으니, 참으로 이것은 세상에 드문 탁견이다. 만일 공이 죽지 않았다면 그 성취한 것을 어찌 다 헤아리겠는가. 오호라! 아깝도다. 기미년에 장릉 참봉에 봉했으나 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의위사시직이 되었는데, 마침 적신 조태구의 아들 조현빈이 세마가 되어, 의리상 동료로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하여 사퇴하고 떠났다. 얼마 후에 다시 의위사에 들어가 부술이 되었다. 그러나 조현빈이 그 직에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버리고 떠났다. 계해년에 목곡 이공 기진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공을 가장 먼저 천거하여 동몽교관을 삼았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어린 학동이 없어 물러 나왔다. 공은 비록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길에 나갔으나 나가고 들어오는데

반드시 의리로 해서 후시라도 지나치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오래도록 벼슬에 임용되지 못하였다. 정묘년에 비로서 시직에서 중부시주부에 오르고, 형조좌랑으로 옮겼다가 문의 현령이 되어서, 아전 단속을 엄하게 하고 백성들을 어질게 돌보며 일을 분석하고 결단을 신속하게 하며 아우르고 자상하게 처리하니, 사람들이 감히 속이지 못하고 신명하다고 하였다. 방백들로 여러 고을을 단속하게 하고, 마을에 훈장을 두어 강론을 돌보며 못된 이를 내쫓고 어진 이를 들어 쓰게 하니, 공이 말하기를 양육한 후에 교육시키고, 가르친 후에 돌보는 것이 이치이다. 내가 행실을 어지럽히면 서까지 거슬리게 베풀면서, 상관에게 아첨하는 짓을 할 수가 없다고, 드디어 그만두고 행치 아니하고, 여러 방면으로 경영하고 계획하였다. 경오년에는 향교에 영을 내려 자제들의 나이가 젊고 마탕이 아름다운 사람 30인을 택하여 순번을 정하여 재실에 투숙케 하고, 또 고을 안에서 늙은이로서 선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성껏 청하여 재실의 장을 삼아 그들을 가르치게 하여 조목들이 미 갖추어 놓았는데, 공이 병으로 떠나게 되어 실행치 못하였으니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그 일을 임해서는 구차히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분수에 맞게 극진히 할 것을 회구한 것을 여기에서도 또한 볼 수 있다. 신미년에 익찬을 제수하였으나 전직되었다. 임신년 12월 15일에 병으로 돌아가니, 향년의 겨우 43세이었다.

공은 타고난 자품이 아주 훌륭하여 다른 사람과 다르고, 용모가 다듬은 옥과 같으며, 단정하고 씩씩하면서도 평이하고 곧으며 명백하면서도 소탈하여 평생 동안 의사 표현을 좋아하지 아니하나, 그 마음을 다스리고 사욕을 이겨나감에 항상 묵묵히 노력을 가했으니 실로 남들이 가히 미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어버이 섬김에 지극한 정성이 있어서 좌우에서 봉양함에 그 정성이 지극하였으

* 송문흠 묘비

(전 면)

유명조선 조산대부 행문의현령 증가선대부사헌부대사헌 겸성균관
 제주 한정당 송선생 휘문흠지묘
 증정부인 청송심씨 부좌

(음 기)

성주가 어려서 어울리는 이가 적었으나, 다행히 홀로 이종형 특
 천 송공과 더불어 놀았다. 큰 어른은 나보다 여섯 살이 많고 작은
 어른은 한 살이 많았다. 그런데, 큰 어른은 도담고 장중하고 넓
 고 손수하고, 작은 어른은 청명하고 영특하고 활발하였다. 돌아
 보면 나는 몽매하고 누추하여 앞서거나 뒤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외람되게 격려와 사랑을 받으며 같이 지내면서 즐거움을 나누었
 다. 불행히도 중년에 작은 어른이 먼저 돌아가니, 큰 어른과 매
 번 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
 리는 일이 있었다. 이제 큰 어른도 돌아가고 나만 홀로 남아 죽지
 아니하고 백발이 되어 갈 곳을 모르는데, 항상 공의 따사롭고 손
 수한 자품과 뛰어난 오묘한 견해를 생각할 때 스스로 온 몸으로
 감회를 이기지 못하니 또한 어찌 미치겠는가. 옛날에 사마공과
 범죽공이 서로 약속하기를 먼저 죽은 이의 묘지를 남은 자가 지어
 주기로 한 것과 같이, 두 분의 학문에 둔 의지와 조예가 내가 아닌
 어느 누구에게 나타내겠는가. 이미 특천이 공을 위하여 묘지를
 지었으니, 대개 후에 죽은 자의 슬픔을 막을 수 있겠는가. 공의
 휘는 문흠이요, 자는 사행이고 은진 사람으로 문정왕 동춘 송준길
 선생의 4 세손이다. 증조 광식은 공조정랑으로 이조참판에 증직

되고, 할아버지인 병원은 의금부도사요, 아버지 요좌는 도사공
 병원의 아우인 상주 목사 병의의 아들인데, 도사공의 후사가 되었
 다. 퇴직한 벼슬은 금산군수요, 호는 묵옹이다. 부인인 영인
 과 평윤씨는 호조정랑, 증 이조판서인 부의 따님이다. 특천공
 명흠이 당시 유종이 되어 벼슬이 찬선에 이르고, 일찍이 부름을
 받아 서울에 올라가 직무를 보다가 임금의 뜻에 거슬러 벼슬을 버
 리고 산림에 묻혀 고고하게 살았다. 공은 숙종 연간 경인년 12
 월 11일에 태어났다. 나면서부터 눈섭과 눈이 밝고 빼어나게
 빛이나 생기가 넘쳐흘렀다. 조금 자라서는 총명함이 남다르게 뛰
 어났다. 글을 한번 눈으로 홀터 보면 모두 외어 한 자도 틀리지
 않았다. 특천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전에 총명하다고 일컫던 일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나의 소견으로는 선비의 행실에 거의 가
 잡다 하였다. 형과 더불어 묵옹에게 수학 할 때에 문맥을 일찍
 터득하여 말을 함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송씨의 쌍벽이라고 하였다. 문장을 지을 때, 맑고 간결하며 높고
 옛스러워 음운이 마치 금석문에서 나오는 듯 하였다. 시도 또한
 맑고 거침이 없어 생각이 극진함이 있어, 그 당시 홍재, 황경
 원, 이인상 등과 같은 문사들이 모두 우두머리 자리를 사양하였
 다.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놀면서 여유 있게 시험에 응하여 그
 자리의 무리들을 누르고 드디어 영조조 계속년 사마시에 높은 등수
 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즐겨하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았다. 대개 문정왕으로부터 그 이래로 시와 예로 아버지로
 부터 교육받음이 먼리서 연원 되었고 또한 어진 형이 있으니, 서
 로 더욱 감화를 주어 비록 전심으로 향할 수는 없었으나, 분연
 히 성현으로 스스로 기약하기를 특천공처럼 그 높은 지식과 오묘한
 이해력이 왕왕 조화롭게 나아가고 조화의 근원을 이루었다. 필력
 이 정밀하고 씩씩함은 도의 오묘한 형상으로서 특천공으로도 미치

又何為碑矣
 嗚呼府君志業昭耀一世貞珉之銘能合於有道無繩之辭以洗乎景文畫冷之譏亦難矣故自先世獨取乎厥門任公幽誌之作和其同德
 謹劇無如此公之詳將此誌文擬欲移刻於碣陰而只有治石與再度追記閱屢星霜而未遑者抑有待於冥會而然歟
 憲宗甲辰相臣權敦仁 選白 府君經學淵源之成又嘗慨倦於春秋大義而力辭薦剡混跡陰途請加 褒嘉 命贈大司憲兼祭酒之職恭人從 贈貞夫
 人嗚呼休哉不肖鍾冕始克遵先志請筆於當世君子顯刻而堅之瑩東追記內外雲仍謹稽先祖考縣監諱致淵無子取 贈左贊成諱時
 淵次男晉州 收使諱啟栢為子黃善文敬公諱啓幹無子取晉州公長男諱泰熙為子官恭判次男諱豐熙早卒只有庶男周老恭判公有二
 男一女男長 夏老縣監次諱殷老金山郡守還歸本重寔吞禍也女適趙觀鏞有二男漢弼漢乾收使公女婿趙東岳縣監繼男重夏監復周
 老有二男鍾翊主事次鍾輅環淳瑒淳瑒瑒淳瑒即鍾翊之四子郡守公有一男二女男即鍾冕女適金興鎮進士洪範指恭書縣監公有一
 男鍾憲早歿以興淳為繼進士原裝中外裔長金寧次金光熙三男二女其肯其育正言其有郡守女適尹厚東無尹趙鎮宜次黃仁憲三男
 其肅其南其聖李義宅無嗣三女適金順善朴濟堯吳煥李光憲恭判繼男惇進士三女適沈宜度洪鍾浩府使金浩根洗馬洪箕安五男在
 應收使在承在聲在望在行進士洪冕慶承旨金在瑒男命鉉過房縣監繼男世鉉縣監女適李馨淳教官趙萬永領敦寧府事世恩府院君
 克勉 聖女神貞王后追崇翼皇后男判書文肅公秉龜判書秉燮次女適李寅高判書俞致善判書金爽鉉府使
 光武八年甲辰十一月 日立

五代係通政大夫安東郡守鍾冕謹追記
 崇政大夫前判敦寧院事海平尹用求書

송문흠 묘비 측면

聖周以而寡合獨幸從姚兄樸泉宋公兄弟遊長公長余八歲少公長一歲而長公敦重弘粹少公清明英發願余蒙陋無足為後先而猶被
 焚愛相得益驪然也不去中平以公奮忽先逝每與長公語及存沒未嘗不潛馬出涕也今長公亦已下世而余獨不死白首偃偃母念公温粹
 之資超妙之見自不勝百身之感而亦何及哉昔司馬公與范蜀公約後死者為之誌今二公志業造詣非余發之伊誰也既為樸泉誌遂及於
 公蓋所以塞後地悲也公諱文欽字士行恩津人文正公同春先生諱浚吉四世孫也曾祖諱光弼工曹正郎 贈吏曹參判祖諱炳達義禁府
 都事考諱堯佐以都事公弟尚州牧使諱炳翼之子為都事公後卒官錦山都守號默翁妣今人坡平尹氏戶曹正郎 贈吏曹判書諱扶女也
 樸泉公諱明欽為世儒宗官至贊善嘗被徵至京言事忤 旨即徑去士林高仰之公以 肅宗庚寅十二月十一日生而眉目明秀精采溢
 發稍長聰明絕人書一過目即背誦不錯一字樸泉公嘗言古所稱神聰未知如何而以吾所見士行其幾至與伯氏同學於默翁公文理夙就
 出語輒驚人謂之宋氏雙壁為文章清簡高古聲韻若出金石詩亦澹宕有思致一時文士如洪梓養之黃景源大卿李麟祥元靈皆讓一頭
 地間出遊場屋輒屈其曹偶遂以 英廟癸丑中司馬高尊然其中心所樂不在是也蓋自文正先生以來詩禮之教遠有淵源而又有賢兄相
 與薰陶故雖不能專心向裏奮然以聖賢自期如樸泉公而其卓識妙解造道直造乎造化之原而筆力精悍又足以形容道妙雖樸泉公亦自
 以為不及也嘗陪伯氏與一二同志入懷德之飛未庵講大學更唱迭書成一巨編而公所論說獨發其妙諸友為之閣筆然却公平寬弘不帶
 一隅而見理甚寂聞人言即能曉解其意可從則從不以為難由是人亦樂與之上下其論焉尤深於禮常曰為禮而不本於儀禮陋也如喪服
 士喪禮及冠昏注字等篇皆所服習而於杜氏通典亦然故其答人疑問動有明據可行無疑其他言議亦多不拘箋註獨知徑造於前人所未
 發者今讀遺稿如春秋論首篇一掃諸家穿鑿之說而直契聖人本意於數千載之上真是曠世卓見使公無地其所就庸可量哉嗚呼惜哉已
 未補 長陵祭奉不就既而為明衛司傳且會賊臣趙泰考子顯彬為洗馬公義不與同僚即棄去未幾復入明衛司為副率以顯彬尚居其職
 人棄去癸亥狀谷李公其鎮東銘首舉公為童蒙教官居歲餘以無童蒙辭遞公雖以陰路進出屢進退必以義未或放過以此久未調至丁卯

始由侍直升宗簿寺主簿轉判曹佐郎出為文義縣令嚴以東吏仁以恤民敏於制法而齊以綜客人不敢欺號為神明方伯飭列邑使鄉置刑
長考講法洪公曰養而後教教而後考理也吾不能質行逆施以媚上官遂廢不行而多方經畫至庚子始領令于校使擇子弟年以質羨者三
十人分番居齊又或請獨老有士望者為齊長以教之節目既具而公會以病去不果行識者恨之然其臨事不苟必求盡分於此亦可見其辛
未除期其進士東十二月十五日疾卒享年僅四十三公天姿絕異容貌如琢玉瑞莊而易且明白而疎遠平生不喜為標致而其治心克已
常默然加功實有人不可及者事親有至性左右就養曲盡其誠古所謂視無形聽無聲雖火不怠父母於公兄弟見之事伯氏如親父伯氏常
服藥公親為煎進服而後退一日燕未進而以事少趨歸即奉進伯氏有不豫色徐曰向之公遠巡不敢對其容有歎其敬謹如此與人交曲有
誠款溫恭子諫言笑琅然人皆愛重之然實峻截今淡見人有過必面責之不少饒尤嚴於陰陽黑白之辨是非所在操執確然不以一毫撓之
桂坊多僚員異起者雜進每入直上下番分居東西室互相來往而公獨嚴立界限不失一步地留心世務遇事辨論多鑿鑿中毅伯氏嘗戲言
士行留中常執閹豈所謂皇王帝伯中自輪囷者耶論天下事至丙丁甲申軌慷慨歎曰我國於皇明君臣之義百世如一日不可視以前
代而李玄錫明史乃敢名以綱目而予奪之謬悖甚矣常嚴斥之後英願命詞臣編皇朝史以通鑑名其書蓋公之議行也有文集若干卷藏
于家其中晚所作樂乎與道一者李敬輔伯訥讀之曰百餘年來無此作人以為知言朱子周易本義從呂氏本以反古經十二篇之舊而永樂
夫全乃用王爾本合傳義為一後學不復知朱子本意公病之考據朱子諸說而更定之後得與本古易一如公所為朱子編小學書略為註解
見於何氏集成而讀者皆從過不知為朱註公別發之聲為別本以還其舊因行于世其書求道隨處透脫率類此筆法精工尤長於諫人
金石多公筆與元靈之文並稱為近世篆隸之宗云晚得一異區於所居之方山下鑿池種蓮作小亭以臨之名其堂曰閒靜取淵明語也公配
青松沈氏吏曹察判聖希女端恭婉嫺事皇姑至孝事標泉公以至誠及沒標泉公為文哭之詞甚悲宗黨咸稱之曰真公之配子男長致淵
監以時淵出為標泉公後方知新寧縣女婿長且長金寧以監司金光默次參奉黃仁燾致淵無子子時淵男致拓女婿李義宅李光憲共其
時淵二男長致幹次即啓栢女婿洪冠變金在跡趙萬水金光默三男其肯基肯基有女婿尹厚東趙鎮宜黃仁燾三男其南次多女婿金
培根次未行公墓在公州炭谷面長才洞壬聖原沈恭人附焉銘曰 絕知妙解發以韶音靈絲經曲庖刀幾深翻載之手屈之未黑嗟時之

有明朝鮮朝散大夫行文義縣令 贈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
酒閒靜堂宋先生諱文欽之墓
贈貞夫人青松沈氏祔左



송문흠 묘비

25. 송문흠(宋文欽) 묘비

소재지 | 논산시 벌곡면 도곡리

연월일 | 서기 1904년(순종 8년, 갑진)

찬자 | 송종면(宋鍾冕)

서자 | 윤용구(尹用求)

비신 | 높이 | 140 cm

폭 | 57 cm

두께 | 50 cm

자경 | 전면 | 6 cm

음기 | 2 cm

석질 | 오석

송문흠의 묘와 묘비는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오석 비신에 팔자 지붕 모양의 가첨석과 농대석을 갖추고 있다. 한 말에 세운 묘비로 윤용구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송문흠의 자는 사행이며 호는 한정당이고 본관은 은진인으로 동춘당 송준길의 4세손으로 1710년(숙종 36)에 태어났다. 이재의 문인으로 영조 9년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음보로 장릉참봉으로 보임하였으나 나가지 아니하고 정묘년에 시직에서부터 종부시 주부에 이르고 형조좌랑, 문의현령에 이르렀다. 예서를 잘 써서 전서의 이인상과 함께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불리었다.

忘我強老病述此銘章
崇禎五辛卯二月 日

族孫 洛鉉 謹撰
九代孫 瑩洙 謹書

* 金益秋 墓碑

(前 面)

有明朝鮮通訓大夫行繕工監奉事金公諱益秋之墓

淑人晉州蘇氏 附左

淑人南原楊氏 附右

乾坐

(陰 記)

有明朝鮮通訓大夫行繕工監奉事金公墓碣銘并序

日連山族老在貞以其六世祖奉事公墓誌來請碣命余謹按家史曰我金氏遠系新羅至麗輝燦入 國朝左議政諱國光以勳封光山君百世不遷五代孫文元公諱長生以道學爲儒宗配食聖廡亦百世不遷世或以大小宗分言而其實同祖爲一門一門之事何敢辭諸但吾老昏不能文請更求他文後月餘復以書固懇余不得已接其誌而撰次之曰公諱益秋字時哉上距光山君爲七世曾祖知中樞諱殷輝於文元公爲叔父而入繼太宗祖副司果諱善生考副司勇諱梁妣韓山李氏宣教郎復源女公以 仁廟壬午十二月二十一日生受業於兩宋先生兩先生反三從滄洲公皆期許甚重以門陰拜翼陵參奉遷繕工監奉事己巳蔑貞棄官還鄉庚辰伏復拜舉徽陵參奉辛巳又呂病歸壬午十月初四日卒葬連山縣西居正右酉坐原配晉州蘇氏同知中樞東鳴女辛巳生癸亥卒墓附子萬陞萬整女監司李萬稷朴尙涵皆其出也後配南原楊氏世學女甲辰生丙午卒葬公墓右乾坐子萬陸萬奩其出也萬陞者鎮一庶尹鎮五鎮九出后萬整女鄭揉持平萬陸子鎮三鎮七萬奩子鎮百鎮億李監司子秀得參判朴尙涵子春根鎮一子廣澤鎮五子裕澤祿澤鎮九子熙澤顯澤啓澤鎮三子載澤郁澤鎮七子重澤鎮百子成澤寧澤出后鎮億噫公以淳厚默簡之恣又爲文元公至親而居其鄉家庭之訓早已揉梁又受學於兩宋先生從遊滄洲公學問所就孝友諸行後孫不能盡記己巳棄官特其一嚮知鼎者也余懼後承漸還或分兩宗而疎於敦睦故強病爲此以應老人懇云爾銘曰 羅麗華閔我 朝益昌勳業道學甲於東方公爲後孫胚胎前光從師兩賢孝友溫良爲貧蔭仕亦慎行藏己巳蔑貞棄官還鄉厚德壽後雲仍成行墓禁顯刻至今未遑後承疏遠慮或相忘我強老病述此

의 청을 들어준 것이다. 명하노니,

신라와 고려에 빛나던 가문이 조선조에 더욱 창성하도다.

훈육 사업과 도덕이 동방에 으뜸이로다.

공은 선현의 후손으로 선대의 광영 속에 태어났도다.

두분 스승에게 사사받아, 효도와 우애가 깊고, 온화순량하도다.

가난하여 음사로 나갔으나, 그 행실은 숨기고 삼가 하였도다.

기사환국으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 왔도다.

후덕하여 장수하니, 자손들이 본받음이 되도다.

묘전에 비갈을 금하니 지금까지 못 이루도다.

후손들이 소원해져, 후시라도 잊혀질가 염려된다.

내가 높고 병이 들었어도 힘써 이 비명을 기술하노라.

송정 5 신묘년 2월 일

족손 낙현 삼가 비문을 짓고
9대손 영수는 삼가 쓰노라.

(역주)

- ① 일련지정(一鸞知鼎)「한점의 고기 맛으로 솔 속의 음식맛을 알 수 있다. 즉 한가지 행동을 보아 그 사람의 진실을 다 알 수 있다. 즉

* 김익추 묘비

(전 면)

유명조선통훈대부행선공감봉사김공휘의추지묘

숙인진주소씨 부좌

숙인남원양씨 부우

건좌

(음 기)

유명조선통훈대부행선공감봉사김공묘갈명병서

어느날, 연산에 사는 일가 노인 재정이 그의 6세 조 봉사공의 묘지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묘갈명을 청하였다. 삼가 집안 역사를 상고하여 보면 우리 김씨는 멀리 신라에서 시작하여 고려에 이르도록 현현한 빛이 있었고, 조선조에 들어와 죄의정 휘 국광이 공훈으로 광산군에 봉해지고, 백세가 지나도록 불천지위로 모셔지고, 오대손 문원공 휘 장생이 도학으로 유림의 종장이 되어 문묘에 배향되고, 또한 불천지위로 모셔졌다. 세상에서는 후대소종문으로 나누어 말하나 사실은 같은 할아버지의 한 문중이다. 한 문중의 일을 어찌 감히 사양하리요. 단지 늙은 내가 혼몽해서 능히 글을 지을 수 있을까 하여 다른 이에게 비문을 청할 것을 말했으나, 달포가 지난 후에 다시 찾아와 간청하니, 내가 부득이 그 묘지를 받아 이 글을 찬하노라. 공의 휘는 익추이요, 자는 시재이며, 위로는 광산군까지 7세가 된다. 증조는 지중주부사 은휘이니 문원공에게 숙부인데 대종손으로 들어가 대를 이었고, 할아버지는 부사과 휘 선생이요, 아버지는 부사용 휘 양이요, 어머니는 한산 이씨로 선교랑 복원의 따님이다. 공은 인조 임오년 12

월 21일에 출생하여 두분 송 선생에게 수업을 받았는데, 두분 선생과 삼종 창주공의 기대 함이 심히 컸다. 가문의 음덕으로 의릉 참봉을 배수하고 선공감 봉사로 옮겼다. 기사년 정국에 실망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갔다. 경진년에 다시 휘릉 참봉에 천거되어 배수하고 기사년에 병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임오년 10월 4일에 돌아가 연산현 서쪽 거정터 오른쪽 유좌 언덕에 장사하였다. 부인 진주소씨는 동지중주 동명의 따님으로 기사년에 출생하여 해년에 돌아가 공의 묘에 합장하였다. 아들은 만승, 만돈이요, 딸은 감사 이만직, 박상함에게 출가하였는데 모두 부인의 소생이다. 뒤에 얻은 부인은 남원 양씨인데, 세가의 따님이 다. 감진에 출생하여 경신년에 돌아가 공의 묘 오른쪽 건좌에 장사하였다. 아들 만옥, 만후가 부인의 소생이다. 만승의 아들은 진일은 서운이요, 진오, 진구는 출계하고, 만돈의 딸은 지평 정유에게 출가하고, 만옥의 아들은 진삼, 진철이요, 만후의 아들은 진백, 진억이요, 이 감사의 아들은 참판인 수득이요, 박상함의 아들은 춘근이요, 진일의 아들은 광택이요, 진오의 아들은 유탉, 녹택이요, 진구의 아들은 희택, 현택, 계택이요, 진삼의 아들은 재택, 옥택이요, 진철의 아들은 중택이요, 진백의 아들은 성택, 영택인데, 영택은 진억에게 출계하였다. 슬프도다, 공은 성품이 순수하고 돈후하며 과묵하고 간결하다. 또 문원공의 조카가 되어 시골에 살면서 집안의 가정교육을 일찍이 바로 익히게 되고, 몸에 젖었으며, 또 양송 선생에게 수학하고, 창주공을 따라 교유하여 학문에 나아갔으며 효도와 우애의 제반 행동을 후손들이 다 기록할 수 없다. 기사년에 벼슬을 버린 것은 한 점 고기 맛으로 솔의 음식을 알 수 있는 것①과 같다하겠다. 내가 후세의 자손들이 점점 멀어져 혹시 두 종파로 나뉘고 도목에 소홀히 할가 두려워하여 병으로 몸이 불편해도 비문을 지어 일가 노인

有明朝鮮通訓大夫行繕工監奉事金公墓碣銘
 白連山族老在貞以其六世祖奉事公墓誌來請碣銘余謹按家史曰我金氏遠系新羅至
 開創左議政諱國光以勳封光山君百世不遠五代孫文元公諱長生以道學為儒宗配食
 不遠世或以大小宗合言而其實同祖為一門一門之事何敢辭諸但吾老昏不能文請
 傳復以書固懇余不得已按其誌而撰次之曰公諱蓋秋字時我上距光山君為七世
 公諱文元公為叔父而八總太宗祖副司果諱善生考副司勇諱梁此韓山李氏宣
 仁廟壬午十二月二十一日生受業於兩宋先生兩先生及三從滄洲公皆期許甚重
 奉春遂繕工監奉事已巳歲貞稟官還鄉庚辰復拜 徽陵參奉幸已又以病歸壬午十
 連山縣西居正右兩坐原配晉州蘇大同知中樞東鳴女辛巳生發友卒墓附子為陞
 授朴尚福皆其出也後配南原楊大世舉女甲辰生丙申卒葬公墓右乾坐子萬陸萬
 鎮一庶尹鎮五鎮九出後萬塾女實標持平萬陸子鎮三鎮七萬塾子鎮百鎮億奉監司子
 尚涵子春根鎮一子廣澤鎮五子裕澤祿澤鎮九子興澤顯澤啓澤鎮三子載澤和澤鎮
 子成澤寧澤出後鎮億億公以淳厚簡默之姿又為文元公至親而居其鄉家庭之
 於兩宋先生從遊滄洲公學問所就孝友諸行後孫不能盡記已巳稟官持其一
 漸遠或分兩宗而疎於敦睦故強扁為此以應禱老之懇云爾銘曰
 羅麗筆闕我 朝益昌勲業道學甲於東方公為後孫胚胎前光後師為

歲已巳歲貞稟官還鄉奉德素後稟官持其一
 老病述此銘章 辛卯五月

김익추 묘비 음기

有明朝鮮通訓大夫行繕
 工監奉事金公益秋之墓
 淑人晉州蘇氏 附左
 淑人南原楊氏 附右
 乾聖

김익추 묘비 전면



김익추 묘비

24. 김익추(金益秋) 묘비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거정터
연월일 | 서기 1891년(고종 28년, 신묘)

찬자 | 김락현(金洛鉉)

서자 | 김영수(金瑩洙)

비신 | 높이 | 156cm

폭 | 58cm

두께 | 25cm

자경 | 전면 | 7cm

음기 | 1·8cm

석질 | 화강암

김익추의 묘소는 연산면 고정리 선영에 있고 묘앞에 묘비가 있다.

묘비는 옛것이 너무 마모되어 글자의 흔적을 알아보기 어려워 1891년에 다시 세운 것으로 화강암 비신에 가침석과 농대석을 갖추고 있다. 전면에는 묘표를 새기고 후면에는 음기를 새겨 넣었다.

김익추의 자는 시재이며 본관은 광산인으로 1642년에 태어나 1702년 돌아왔다. 벼슬은 인릉 참봉을 배수하고 선공감 봉사에 올랐다. 1689년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왔다가 1700년에 능참봉에 천거되었다.

* 金立輝 墓碑

(前 面)

有明朝鮮通訓大夫行掌隸院司議金公立輝之墓

恭人豐德張氏 附左

(陰 記)

司議金公持心醇厚宏才懿德蔚有佳譽然以黃岡先生爲兄以沙溪文元公爲姪則難乎爲弟爲叔而共有講學切磋之資益文元公之作輓恩同父子義兼朋一句語足可知公而不朽於世矣公諱立輝字景信其先出新羅有王子興光知宗國將亂出遁于光州爲氓庶子孫因籍爲至麗朝八代爲平章事入我朝有諱問官檢閱配陽川許氏以節行旌閭再世而至左議政諱國光策勳封光山府院君卽公高祖也曾祖諱克忸大司諫 贈禮曹參判光原君祖諱宗胤郡守 贈兵曹參議考諱鎬縣監 贈議政府左贊成妣 贈貞敬夫人全義李氏正郎光元女也公以嘉靖丙午生溫容美質篤於行誼早廢舉業惟着意於經禮至於書畫皆臻其妙而亦不屑也暫試祿仕歷典數郡俱著治效而旋即拂衣歸故山瞻依先楸家如懸磬而安其澹泊教督諸子以送餘景仙源金文忠公詩蠱上坎中公就此晚歲優遊田舍中眞記實也公之所樂在而不在彼則不但公趣操之有過人者亦可驗濡染家庭之有素也 萬曆戊午五月二十六日卒享年七十三葬于旺垞議政公兆下亥坐原配豐德張氏河源君忠烈公珽之曾孫別提洵之女附于公墓之左有三子長吉生忠義衛次善生司果爲仲父僉樞公后次義生爲季父牧使公后女婿尹是勇府使側室子漢生女婿申聘壽盧弘立孫男樂采女適李長齡金之一吉生出梁司勇柳女適尹材典簿善生出柴采栽來聚女適李台元義生出應望慶望者尹是勇出也噫公隱潛之行必多可書者而中經喪亂文獻無傳舊有表墓之石而字畫漫漶且無陰記大懼莫徵於來後公之七代孫相百哀粹諸公輓詞與祭文推爲遺事將營改堅顯刻來謁銘余議不敢辭略舉其概系之以銘曰 服襲庭範夙抱自珍至行純德宜竝古人位雖不滿壽稱其仁我辭可質以書貞珉

通訓大夫行司憲府執義兼經筵官恩津宋來熙并述書

崇禎紀元後四丁未 月 日立

나 중년에 난리를 겪어서 문헌이 소실되어 전해오는 것이 없고, 산소에 세운 묘표가 있으나 자획이 마모되고 음기가 없어 후세에 전해줄 증거 될만한 것이 없어 염려가 크다. 그래서 공의 7대손 상백이 여러 어른의 만사와 제문을 모아 돌아간 분의 행장을 만들고 비문을 지어 비에 새길 것을 도모하고서, 나에게 찾아와 비명을 지어 줄 것을 부탁 받으니, 의리상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대개의 가계를 간략하게 짓고 명을 지었다. 이르기를,

가정의 법도를 이어 받아, 일찍이 스스로 보배로움을 안았도다. 지극한 행동과 순수한 덕은 마땅히 옛사람들과 겨룰 만 하도다. 지위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나, 수명은 그 인자함에 맞았도다. 내가 지은 비문은 가히 갈피를 잡고 헤아려 작성할 만 하니, 고운 비석에 새기노라.

통훈대부 행 사헌부집의 겸 경연관은진 송래희는 비문을 짓고 아올러 쓰다.

송정기원후 4번째 정미년 월 일 세우다.

(역주)

- ① 현경(懸磬) 1 그릇 속이 빈 모양. 가난하여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비유한 말.
- ② 고괘(蠱卦) 1 6 4 괘의 하나로, 산아래 바람이 있음을 상징함.
- ③ 감괘(坎卦) 1 6 4 괘의 하나로, 물의 거듭됨을 상징함

* 김입휘 묘비

(전 면)

유명조선 통훈대부 행정예원사의 김공입휘지묘
공인 풍덕 장씨 부좌

(후 면)

장예원사의를 지낸 김공은 마음 가짐이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우며 큰 재주와 인자한 베품이 있어 솟아 난 아름다운 명예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공은 황강 선생을 형으로, 사계 문원공을 조카로 두어, 아우가 되고 숙부가 되는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같이 강학을 하여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으며, 자질을 키우는 이로움이 있었다. 공이 돌아갔을 때 문원공이 만사를 지으면서 쓰기를 「은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같고 의리는 친구와 같다」라는 한 구절로도 충분히 공을 알 수 있어 세상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공의 이름은 입휘이요 자는 경신이니 그 선조는 신라에서 나왔는데 왕자 흥광이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알고 광주로 숨어 들어와 일반 백성이 되어 살기 시작하여, 그 자손들이 광주를 관향으로 삼았다. 고려조에 와서 8대에 와서 평장사가 되고, 조선조에 들어와 문이라는 분이 벼슬이 검열에 이르러, 그 부인 양친 허씨는 절개를 지키는 행실로 정려가 내려지고, 두 대를 내려와 좌의정인 국광에 이르러 공훈이 책록 되고 광산부원군으로 봉하니, 이 분이 공의 고조이다. 증조인 규복은 대사간으로 예조참판과 광원군에 증직 되고, 할아버지인 중효는 군수인데, 병조참의로 증직 되고, 아버지 호는 현감으로 의정부 좌참성으로 증직 되었다.

어머니는 정경부인으로 전의 이씨인데 정량 광원의 따님이다.

공은 가정 병오에 출생했는데, 온화한 모습과 아름다운 자질이 있어 행실을 돈독히 하였다. 일찍이 과거 보는 일을 접어두고, 오직 경서와 예학에 뜻을 두었고, 글씨와 그림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어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잠깐 시험삼아 벼슬길에 나가 두어 고을을 역임하여 모두 잘 다스리니 큰 효과가 드러났다. 곧 관복을 벗고 옛 향리로 돌아와 선산을 바라보며 의지하니, 마치 집이 「속이 빈 그릇 같아」 ① 청빈하나 그 편안함이 담박하였다. 여러 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선원 김문충공(김상용)의 시에 「고개의 상②과 감괘의 중③을, 공이 이것을 취하여 만년에 넉넉히 전원 농장에서 자적하였도다.」 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공이 즐겨하는 바는 여기에 있고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공의 취미와 지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라 또한 가정에만 충실하여 본래부터 소박함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겠다.

만력 무오 5월 26일에 돌아가니 향년 73세이었다. 왕대리의 좌의정공 산소 아래 해좌에 장사 지냈다. 먼저 부인은 풍덕 장씨로 하원군 충렬공 정의 증손인 별제 순의 따님인데, 공의 무덤에 부장 하였다. 세 아들을 두니 장남은 길생인데 충의위요, 차남 선생은 벼슬이 사과인데 둘째 아버지 철초공의 양자로 들어가 후계자가 되고, 다음은 의생인데 작은 아버지 목사공의 양자로 들어가 후계자가 되었다. 사위는 윤시용이요 부사이다. 측실의 아들은 한생이요 사위는 신수담과 노홍립이다. 손자는 낙미요, 손녀는 이장함과 김지일에게 출가하였다. 선생은 네 아들 시, 채, 래, 취를 두고, 딸은 이태원에게 출가하였다. 의생의 소생은 응망과 경망이요, 윤시용도 자녀를 두었다.

슬프도다, 공의 숨기고 잠긴 행실이 있어 반드시 쓸 것이 많으

司議金公持心醇厚宏才懿德蔚有佳譽然以黃岡先生為兄以沙溪文元公為姪則難平為弟為
 叔而共有講學切磋之資益文元公之作輒思同父子義兼朋一句語足可知公而不朽於世矣公
 諱立輝字景信其先出新羅有王子興先知宗國將亂出適于光州為氓庶子孫因籍焉至麗朝八
 代為平章事入我朝有諱問官檢閱配陽川許氏以節行旌閭再立而至左議政津國光策勳封
 光山府院君即公高祖也曾祖諱克忬大司諫 贈禮曹參判光原君祖諱宗胤郡守 贈兵曹參
 議考諱鎬縣監 贈議政府左贊成妣 贈貞敬夫人全義李氏正郎光元女也公以 嘉靖丙午
 生溫容美質萬於行誼早慶舉業惟著意於經禮至於書畫皆臻其妙而亦不屑也暫試祿仕歷典
 數郡俱著治效而旋即拂衣歸故山瞻依先楸家如懸磬而安其澹泊教督諸子以送餘景仙源金
 文忠公詩盡上坎中公就此晚歲優遊田舍中真記實也公之所樂在此而不在彼則不但公趣操
 之有過人者亦可驗孺染家遠之有素也 萬曆戊午五月二十六日卒享年七十三葬于旺岱議
 政公屯下亥坐原配豐德張氏河源君忠烈公珽之曾孫別提洵之女附于公墓之左有三子長吉
 生忠義衛次善生司果為仲父僉樞公后次義生為季父牧使公后女壻尹是勇府使側室子漢生
 女壻申聃壽蘆弘立孫男樂架女適李長齡金之一吉生出梁司勇梁女適尹材典簿善生出柴宗
 裁來梁女適李台元義生出應望慶望者尹是勇出也噫公隱潛之行必多可書者而中經喪亂文

珍至行純德宜珪古人位雖不滿壽稱其仁我辭可質以書貞珪
 崇禎紀元後四丁未 月 日 立 道訓大夫行司憲府執義蕭 經遜官恩津宋來熙并述書

(측면)

김입휘 묘비. 음기

廢去傳舊有表墓之石而字畫漫漶且無陰記大懼莫徵於來後公之七代孫相百讓科諸公輓詞
 與祭文擬為遺事將營改豎顯刻來謁銘余義不敢諱略舉其與系之以銘曰 服龍庭範夙抱自

有明朝鮮通訓大夫行掌
 隸院司議金公立輝之墓
 恭入豐德張氏 祔左

(측면)

김입휘 묘비. 전면



김입휘 묘비

23. 김입휘(金立輝) 묘비

소재지 | 논산시 두마면 왕대리 (현재는 계룡시로 편입되었다)
 연월일 | 서기 1847년 (헌종 13년, 정미)

찬 자 | 송래희(宋來熙)

서 자 | 송래희(宋來熙)

비 신 | 높이 | 115 cm

폭 | 52 cm

두께 | 13 cm

자 경 | 전면 | 9 cm

음기 | 2 cm

석 질 | 대리석

김입휘의 묘비는 대리석 비신에 팔작 지붕 모양의 가첨석과 연화문을 새긴 농대석을 갖추고 있다. 전면에는 묘표를 새기고 후면에는 음기를 새겨 놓았다.

김입휘의 자는 경신이며 본관은 광산인으로 김계휘의 아우로 1546년(명종 1)에 태어나 1618년에 돌아가니 향년 73세였다. 공은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경서와 예에 뜻을 두었고,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다. 잠시 두어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으나 곧 그만두고 선영 돌아와서 후학을 가르치며 나머지 여생을 보냈다. 벼슬은 통훈대부 장예원사의를 지냈다.